



몸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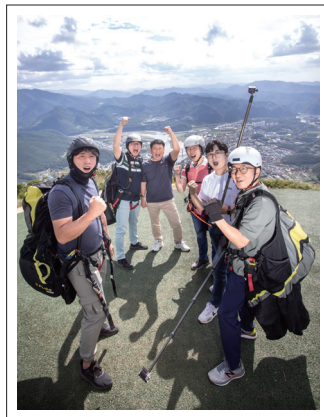
교정공무원에게
필요한 삶의 균형



Re: Balance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목표를 확실히 하고 이를 달성한다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월간 <교정> 10월호에서는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교정공무원의 삶의 목표와 노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C O N T E N T S

Re:member

- 04 **취임 인사**
제10대 교정본부장 신용해
- 06 **역사와 오늘**
홍성교도소
- 14 **생각의 접점**
하루에 활기를 더하는 바람직한 워라밸
홍성교도소
- 16 **응원의 선물**
끈끈한 조합으로 완성한 아름다운 조화
홍성교도소 총무과
- 20 **물고 답하다**
균형감으로 완성하는 안정적 일상
홍성교도소 교감 남관우 & 교도 김성수
- 24 **교정의 가치**
교정 봉사의 물결을 널리 퍼트리다
홍성교도소 교정협의회장 권혁영
- 26 **취미의 공유**
정직한 땀방울로 팔씨름 왕좌에 오르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도 이상필
- 30 **전문가에게 묻다**
패러글라이딩 완벽 가이드
영월교도소 총무과 5인 &
'영월패러글라이딩' 이성민 대표, 김대명 강사
- 34 **나도 패션왕**
가을이니까 멋쟁이 신사처럼
강릉교도소 교감 황세영
- 38 **교정 안에서**
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 40 **교정의 일기**
<파친코>를 감상하고
청주교도소 교감 박순용

Re:mind

- 42 **새로운 만남**
교정시설의 미래를 설계하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백진
- 46 **여행 속 휴식**
안가면 후회할 단풍 명소
보이는 건 '환함' 뿐
- 50 **문화가 중계**
콘텐츠 속 교도소 이미지,
이대로 괜찮을까
- 52 **맛의 탐방**
가을 바다의 깊은 맛
꽃게와 대하
- 54 **교정 리포트**
성범죄자 유형론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의 예측타당도 검증②
- 58 **교정 NEWS**
- 65 **모범 공무원**
- 66 **독자 마당**

※ 모든 촬영은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월간 교정 2022년 10월호 Vol.557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교정본부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월간 <교정>은 웹진(cowebzine.com)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제10대 교정보부장 신용해 찾아가는 취임 인사

지난 9월 1일, 제10대 신용해 교정보부장이 취임했다.
신용해 교정보부장은 취임식 대신 '찾아가는 취임 인사'를 진행했으며,
교정보부 각 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글사진 편집실



제10대 교정보부장으로 임명된 신용해 교정보부장이 취임 첫날,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찾아가는 취임 인사'였다. 교정보부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한 신용해 교정보부장은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으며, 교정보부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직원들은 환영의 박수로 신용해 교정보부장을 맞이하며 취임을 축하했다. 각 과 직원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교정보부장에 대한 기대와 반가운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신용해 교정보부장의 적극적인 소통 모습 덕분에 찾아가는 취임 인사는 더욱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신용해 교정보부장은 “오랫동안 교정현장과 지방교정청, 교정보부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 사람의 마음이 성을 이룬다는 ‘중심성성(衆心成城)’의 말처럼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신임 교정보부장으로서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용해 교정보부장은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직에 입문했다. 교정보부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신용해 교정보부장은 교정보부 보안정책단장, 광주지방교정청장, 서울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등 본부 및 일선의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교정행정 전문가다. 앞으로 신용해 교정보부장은 그간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교정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과 질서가 균형을 이루는 교정 행정을 통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구현하고, 한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여러 사람의 마음이 성을 이룬다는
'중심성성(衆心成城)'의 말처럼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치 교정으로 수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홍성교도소



1980년 홍성교도소 은행나무 진입로

마약류 사범을 전담하는 홍성교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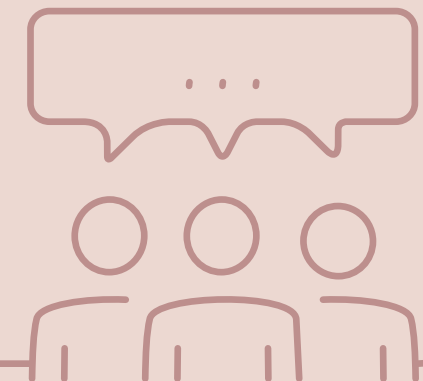
1973년 개칭한 홍성교도소는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특히, 마약류 사범 전담기관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조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재범 가능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3년 홍성교도소 전경



변화를 이끄는 전문교정,
소통과 공감의 열린교정,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교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 한마당잔치 공연



수용자의 성실한 수용 생활을 도모하는 홍성교도소

홍성교도소는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해 수용자들의 성실하고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수용 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등 수용 생활의 질을 다각도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2003년 한마당잔치 체육 대회



2003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 민원인 키오스크 사용 등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민원 편의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1992년 봉제공장 모습

“
 홍성교도소는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을 운영해 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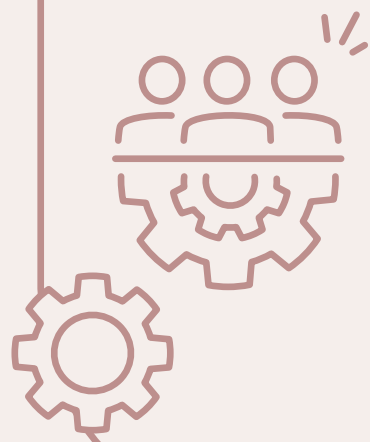


1992년 수용자 교도작업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실질적인 직업훈련 실시

출소예정자 취창업 교육,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인 남포석을 이용해
 만든 벼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교정공무원 무술 훈련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 구현

홍성교도소 교정공무원 모두는 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과
수준 높은 교정교화를 위해 철저한 수용 관리 및 감염병 예방,
시설 점검 등 믿을 수 있는 교정현장을 만들어 갑니다.



2008년 총무 실제 훈련



“ 교정공무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자체 훈련 실시 및 사회봉사를 위한
헌혈 활동 등 더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갑니다.



하루에 활기를 더하는 바람직한 워라밸

홍성교도소



적절한 휴식과 건전한 취미활동은 업무 효율성 향상의 주요 원동력이다. 홍성교도소 직원들은 각자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추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이다.



'골프'

총무과장 정순운

요즘은 스크린 골프장이 많아져서 합리적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스트레스를 저 멀리 날려 보냅니다.



'야구'

교사 김영선

소 내 야구동호회에 가입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포수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공을 칠 때와 투수의 공을 잡을 때의 짜릿함이 저를 자꾸 야구장으로 인도합니다.



'축구'

교사 이영훈

교도소 축구동호회에서 수비를 보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처럼 철벽 수비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직장 선배들과 함께 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사회복지사 실습'

교사 전민수

사이버대 사회복지과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도우며 나름대로 '봉사 힐링'을 느끼고 있어서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테니스'

교감 김종호

30년 넘게 쳐 온 테니스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정 함께 칠 사람이 없으면 벽에 대고 혼자 테니스를 칠 정도인데, 그러다 보면 잡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커피 내리기'

교사 김동식

6개월 전부터 커피를 직접 내려서 마십니다. 요즘은 제가 일하는 전산실에 아예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장비를 가져다 뒀죠. 틈틈이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나누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서핑'

교도 김희빈

재작년에 제주도에서 서핑을 배운 후 재미를 붙여서 부산, 포항, 태안 만리포 등에 다니면서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서핑의 성지라는 양양 서피비치에 가 볼 생각입니다.



'국궁'

교도 이병훈

수험생 시절부터 국궁을 했는데, 마침 홍성교도소에 국궁동호회가 있어서 열심히 활을 쓰고 있습니다. 화살을 한 발 한 발 공들여 쏘다 보면 고민과 근심이 절로 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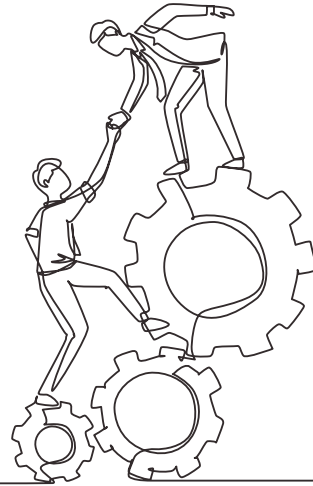


끈끈한 조합으로 완성한 아름다운 조화

홍성교도소 총무과

엄정한 법 집행과 수용자 교정교화라는 교도소의 지상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과의 업무가 보기 좋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도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부서가 있으니, 바로 총무과다. 홍성교도소 총무과는 직원들 간의 끈끈한 조합을 바탕으로 홍성교도소의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교도소 운영의 밑바탕을 마련하다

지구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자연과 문명을 단단히 떠받치는 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도소 총무과는 인사·문서·지출·상훈·수용기록·보관금품·구매 등 교도소의 존립과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관리·지원하기에, 지구의 땅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순운 총무과장과 16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홍성교도소 총무과도 교도소가 조화로운 모습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묵묵히 총괄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총무과는 수용자가 입소하는 그날부터 출소하는 순간까지 정보공개청구·수용기록·보관금품·구매 업무·민원실 운영 등 원활한 수용 생활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돌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수용 생활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한편 인사·지출·상훈 등 홍성교도소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다양한 일도 함께 담당합니다. 아울러 교도소 행사, 부속실 운영 등도 맡고 있습니다.”

교도소 운영과 지원을 아우르는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이기에, 총무과 직원들은 각각의 고유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리더십이 남다르다는 것이 총무계장을 맡고 있는 김종호 교감의 설명이다.

“직원 개개인이 맡고 있는 업무가 각각 나름대로 전문성을 요하고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자칫 직원 공백이 생기면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준다





고 해도 이후의 업무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우리 직원들은 하나같이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자신의 일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주체성이 아주 강합니다. 직원들이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단단하고 달콤하게 영글어 가는 열매를 보는 것 같아서, 교정공무원 선배로서 내심 흐뭇합니다.(웃음)”

‘하나의 총무과’로 행복해진 직장 생활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이유로 피치 못할 공백이 생기면 이를 메우기 위해 사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럴 때를 대비해 총무과는 직원이 전출을 나갈 때마다 자체적으로 보직 순환을 시행한다. 1년에서 1년 6개월 주기로 2~3개 보직을 맡다 보니 총무과 업무를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지고, 유사시 더욱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물론 보직 변경이 이뤄지기 전 반드시 본인의 의향을 묻지만, 대개 자발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아예 다른 보직으로 옮기지 않고 하던 일과 연관이 있는 보직으로 변경해 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민원실에는 보관품 담당 직원과 보관금 담당 직원이 있는데,

보관금 담당 직원이 전출을 나가면 보관품을 담당했던 직원이 보관금 담당으로 옮기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이 보관품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을 도울 수 있죠. 부서 특성상 각자 맡고 있는 업무는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으로써 ‘하나의 총무과’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운동도 총무과를 하나로 연결하는 훌륭한 매개체다. 유독 총무과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교도소 내 동호회를 중심으로 함께 여러 운동을 즐기면서 동료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 운동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풀고 워라벨을 실천하다 보니 심신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직원들끼리 소소하게 나눌 이야기거리가 많아져서 사무실 분위기도 다른 부서 부럽지 않게 화기애애하다는 것이 총무과 직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요즘 직장 내 인간관계나 워라벨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적어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운동으로 건전하게 워라벨을 실천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서로에게 한 발 더 다가서니까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직원들도 직접 커피를 내려서 함께 마시는 등 취향에 맞는 활동을 함께하며 동료애를 돈독하게 쌓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준비하는 일상으로의 회복

총무과는 요즘 MZ세대의 화두인 워라벨을 실천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 스타일과 일의 독립성을 고려해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시행한다. 획일적인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 떨어질 수 있는 팀 사기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직원들은 더욱 큰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한편 총무과 차원에서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추석을 맞이해 시행한 사회복지 시설 및 취약계층 위문활동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직원들끼리 정성을 모아 아동양육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에 소정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전달했지만, 여건이 만들어지면 당장 내년 설부터는 직접 이웃들을 찾아뵙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이처럼 다방면으로 뚝뚝 뭉쳐 ‘원팀(One Team)’을 완성한 총무과를 위해, 월간 <교정>이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다. 운동을 좋아하는 직원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스마트밴드·전동 마사지 건 등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준비했으며, 더불어 눈 마사지기·자동 전자 혈압계 등 보다 용이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도 전달했다. 선물을 받은 직원들은 “홍성교도소 직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며 내일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홍성교도소는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면회·교정위원 활동·대내의 행사 등 총무과가 신경 써야 할 업무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성교도소의 운영과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총무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의 몸과 마음은 항상 홍성교도소 직원들과 수용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수용자가 입소하는 그날부터 출소하는 순간까지 정보공개청구·수용기록·보관금품·구매 업무·민원실 운영 등 원활한 수용 생활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돌봅니다.



MINI INTERVIEW

우리는 각 업무의 전문가입니다



“늘 각자 맡은 업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 분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힘이 다시금 불끈 솟습니다. 그 노력 만으로도 전문가라고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각자 맡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보다 쾌적한 업무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모두 사랑합니다!”

총무과 정순운 과장



김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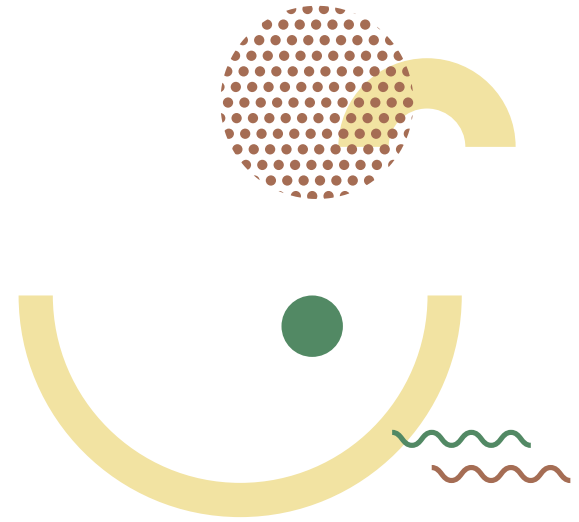
교도

남관우

교감

균형감으로 완성하는 안정적 일상

홍성교도소 교감 남관우 & 교도 김성수



‘원칙’으로 이루는 수용자와의 균형감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일상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정적인 일상은
업무와 여가, 몸과 마음의 균형이 적절하게
잡혀 있어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이다.
그 균형감의 비결이 궁금했던
경력 2년차의 김성수 교도는
고심 끝에 평소 존경해 온 25년차 베테랑 선배
남관우 교감에게 대화를 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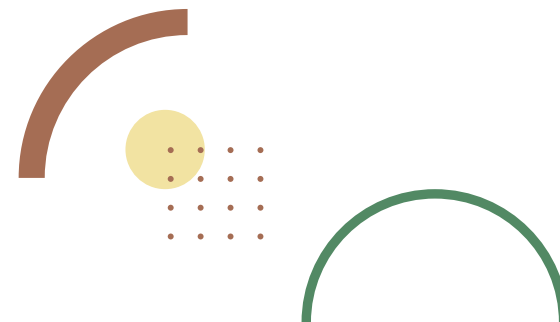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김성수 교도 — 교감님, 안녕하세요! 매일 같이 뵙는데도 바쁜 업무 때문에 차 한 잔 나누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난 뒤에야 커피를 타 드리다니, 저도 참 염치가 없습니다.(웃음)

남관우 교감 —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수용동 팀장으로서 기동순찰팀인 김 교도가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며 업무 처리에 매진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선배가 돼서 한가롭게 커피나 타 달라고 할 수야 없죠.(웃음) 마음을 굳게 먹고 왔다고 말하는 걸 보니 뭔가 고민이 있는 모양이죠? 자, 한 번 마음 편히 털어놔 봐요.

김성수 교도 — 교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민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사실 오늘은 여러 가지 균형감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고민은 수용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선배님들이 수용자를 대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엄격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든 저로서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남관우 교감 — 신입 교정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할 법한 고민이죠. 나도 신입 시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수용자를 대할 때 저마다의 기준이 있겠지만, 나는 법과 규칙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수용자의 행동이 법과 규칙에 어긋나면 어떤 상황에서든 엄정하게 원칙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용 질서를 확립하기 어렵고, 착한 수용자들만 피해를 보죠. 이런 가운데에도 수용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들어왔지만 언젠가는 출소해서 우리의 이웃이 돼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따라서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하는 수용자라면 우리 사회의 안전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부드러운 교정교화에 나서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 말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전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수용 관리에 있어 방향 설정이 어려울 땐 항상 이 말을 떠올리며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어쨌든 엄격한 법 집행과 부드러운 교정교화를 나누는 기준은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퇴근 후 일부러 다른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자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시간은 현실 감각을 유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용자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어떤 방식으로 교정교화에 나서야겠다는 나름의 철학도 생기게 되죠.

남관우 교감

교감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역시 선배님 찾아뵙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앞으로 세상과의 균형감도 놓치지 않는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교도



음악으로 실천하는 두 사람의 '워라밸'

김성수 교도 — 말씀을 듣고 보니 앞으로 수용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수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적절한 균형감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원칙'이었군요. 정년퇴직할 때까지 오늘 교감님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기운을 그대로 살려서 두 번째 균형감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바로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감입니다. 요즘 흔히들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 생활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두고 싶은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단지 일과 생활을 잘 병행하면서 오래도록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고 싶은 뿐인데요. 교감님은 퇴근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남관우 교감 — 올해 봄부터 관사 앞 텃밭에 여러 가지 채소를 기르고 있어요. 여름에는 상추, 고추, 치커리 등을 알차게 수확해서 한동안 웰빙 식단을 즐기기도 했죠. 김 교도의 말처럼 오래도록 무리 없이 일하려면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좋은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성수 교도 — 작년에 창단한 음악동호회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음악은 일상의 시름을 단숨에 잊게 만드는 훌륭한 취미죠. 전임 소장님을 포함한 선배님들이 음악동호회를 결성하려고 할 때 저도 내심 함께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졸지에 창단 멤버가 됐습니다. 작년 말 창단식 겸 연주회 때 두 시간 정도만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베이스 기타와 교감님의 색소폰 소리가 잘 어우러져서 무척 기뻐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남관우 교감 —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 이후로 한 번도 합주를 하지 못한 게 참 아쉬워요. 이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만큼 조만간 정기 모임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연말을 맞아 버스킹 공연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도 김 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사실 베이스리스트 구하기가 왼손 강속구 투수 영입하기만큼 어려운데, 열여덟 살 때부터 꾸준히 베이스 기타를 연주해 온 김 교도가 있어서 음악동호회 회장으로서 무척 든든합니다(웃음)



세상과의 균형감으로 시야를 넓히다

김성수 교도 — 교감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역시 선배님 찾아뵙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어두웠던 등잔 밑이 환하게 밝혀지는 기분입니다.

남관우 교감 — 오히려 저야말로 김 교도와의 담소가 무척 즐겁고 유익하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도 잘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균형감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먼저 선배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내 줘서 고마워요. 균형감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김 교도에게 전하고 싶은 또 하나의 균형감이 떠올랐는데, 이 기회에 이야기를 좀 더 이어 나가 볼까요?

김성수 교도 — 좋습니다, 교감님! 이번에는 어떤 균형감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남관우 교감 — 교정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지시형으로 변하고 딱딱해질 수 있어요. 수용자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다 보니 생기는 일종의 습관인데, 자칫

바깥에서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튀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퇴근 후 일부러 다른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자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교도소 담장 밖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딱딱해진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시간은 현실 감각을 유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용자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어떤 방식으로 교정교화에 나서야겠다는 나름의 철학도 생기게 되죠. 교도소 안과 밖의 적절한 밸런스, 이것이 내가 김 교도에게 전해 줄 마지막 균형감입니다.

김성수 교도 — 이야기를 듣고 나니 교감님 특유의 인자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렵듯이 알 것 같습니다. 교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세상과의 균형감도 놓치지 않는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정 봉사의 물결을 널리 퍼트리다

홍성교도소 교정협의회장 권혁영

글 강진우 사진 이정도

홍성교도소 권혁영 교정협의회장은 2007년 교정위원 위촉 이후 줄곧 교정 봉사와 관련된 활동의 폭을 넓혀 왔다. 교정 봉사의 맑은 물결을 널리 퍼트리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봉사하며 깨달은 교정교화의 힘

보령 지역의 유력 기업인으로서 군 제대 이후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권혁영 교정협의회장은 지난 2006년 홍성교도소와 연을 맺었다. 오랫동안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선배에게 함께 활동하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고, 기꺼이 새로운 봉사활동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지역의 교정위원님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홍성교도소를 찾았어요. 그런데 수용자들의 다양한 인생 이야기와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진지한 모습을 접하면서 교정 봉사가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실감했죠. 그렇게 1년여를 선배님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닌 끝에 2007년 교정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교정 봉사의 2막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그는 수용자 교정교화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집밥을 그리워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상담 행사 시 다양한 음식을 싸 가기도 했고, 시기별 생활물품 및 각종 행사 지원에 나서면서 수용자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혔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지었지만 사뭇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수용자도 종종 만날 수 있었다.

“1992년 LA폭동 때 아버지를 잃은 수용자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런 사건을 겪다 보니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방어적 기질이 강했죠. 그러던 중 어찌다가 미국의 학교에서 총기 사고의 가해자가 됐고, 한국과 미국의 수용자 교환 제도에 따라 홍성교도소로 왔는데요. 오래도록 상담하다 보니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었고, 심정도 정말 착하더군요. 그래서 동료 교정위원님들과 함께 5년 동안 청원을 넣은 끝에 가석방이 됐어요.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착실하게 잘 살고 있죠. 이런 사례들을 겪으면서 수용자도 우리와 함께해야 할 한 명의 사람이자 이웃이라는 사실을 새삼 되새겼고, 우리의 교정교화 활동이 충분히 의미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 갈래로 활짝 펼친 교도소 밖 교정 봉사

권혁영 교정협의회장의 교정 봉사 열정은 홍성교도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외부에서 교정과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상담을 하다 보니 수용자 상당수가 결혼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만약 수용자가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와 이웃으로부터 적절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랐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친한 지인들과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예 결혼가정 아이들을 위한 모임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 지인들과 함께 ‘맑은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결성했고, 지자체로부터 지역사회의 결혼가정 아이들을 소개받아 매년 6차례 이상 만나면서 일일 부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따뜻함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자라날 수 있도록 만나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도 놀러 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중학교에 올라갈 때는 소정의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권혁영 교정협의회장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홍성검찰청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이사를 역임하며 관련 봉사활동과 기부에 힘쓰고 있으며, 작년 발족한 보령경찰서 외국인범죄 피해자지원협의체의 회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들을 구제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홍성교도소와의 인연이 보다 넓은 범위의 교정 봉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초부터 홍성교도소 교정협의회장으로서 교정교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무엇보다도 아쉬움이 크다”며 지난 1년 반을 회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정교화 활동을 거의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교도소와 함께 감사노트 쓰기대회, 독후감 쓰기대회 등 수용자 정서에 도움이 되는 비대면 교정교화 활동을 진행했기에 마냥 안타깝지만 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진정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많이 수용자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더불어 교정과 관련된 외부 활동도 성실하게 이어 나갈 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직한 땀방울로 팔씨름 왕좌에 오르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도 이상필

운동만큼 정직한 것도 없다.
 몸을 움직여 흘린 땀방울은 건강과 활력을 선사한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이상필 교도 또한 땀 한 방울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다진 몸으로 일상을 더욱 풍성하게
 가꾼 것은 물론 팔씨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인생의 또 다른 타이틀을 쌓았다.
 그가 운동을 통해 누리는 행복을 들여다봤다.

글 김주희 사진 이정도



성실로 다진 건강의 품격

이상필 교도가 운동에 관심을 가진 건 중학생 시절이다. 반 대항전으로 진행된 팔씨름대회에서 1등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팔 운동을 시도한 것이 그 시작이다. 당시 처음 웨이트 트레이닝을 접한 후, 꾸준히 운동을 즐겼다. 평소 퇴근 후 헬스클럽을 찾아 웨이트 트레이닝에 몰두한다. 일주일에 6~7회, 거의 매일 운동에 푹 빠져 있다. 이 밖에도 직장 동료들과 배드민턴을 하거나 등산을 즐기는 등 그에게 운동은 습관이자 일상이다.

“시각적으로 변화가 바로바로 느껴지니 성취감과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몸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거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존감도 높아지니 매사가 즐거워요. 운동을 좋아하는 만큼 더 잘하고 싶다는 의지도 생기는데요, 운동 원리나 근육의 기능, 움직임 등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건강하게 수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잖아요. 부상을 방지하는 방법도 익히고 있습니다. 운동은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알아갈수록 흥미로운 세계인 것 같아요.”

정직한 땀방울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신체 안팎으로 좋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몸이 건강해진 것은 물론 쉽게 지치지 않고 피로감도 쉽게 느끼지 않게 됐다. 내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니 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 있게 임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업무를 할 때도 긍정적인 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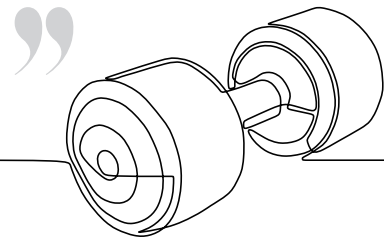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체격이나 몸 상태가 좋은 게 장점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수용자들에게 좀 더 카리스마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당한 지시를 전달하면 잘 수긍하더라고요. 또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운동이 큰 관심사이거든요. 운동 방법 등을 묻곤 하는데, 공통된 주제를 통해 수용자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흘린 땀방울만큼 얻은 것이 많다는 이상필 교도. 무엇보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꿈’이 생겼고, 특별한 ‘모험’이 시작됐다.





“앞으로도 팔씨름 강자들과 겨루는 경험을 쌓아서 아마추어를 넘어 프로 대회에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내년 4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건강한 신체처럼 가정을 튼튼하게 잘 이끄는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팔씨름대회 우승을 향한 특별한 여정

“동료인 박종덕 교위님이 팔씨름대회를 권유해 주셨어요. 충분한 실력이라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경험 삼아 한 번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팔씨름대회 우승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 목표는 지난 8월 말 포항에서 열린 ‘2022 영일만 검은돌장어축제’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팔씨름대회였다. 사단법인 대한팔씨름협회가 주최한 대회로 전국에서 팔씨름 강자들이 모이는 대회다.

이상필 교도는 대회 2주 전부터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팔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위주로 훈련을 시작했다. 팔씨름 관련 영상을 찾아 보며 요령을 익히고, 우승 전략을 고민하기도. 그렇게 다가온 대회 날. 박종덕 교위는 직접 운전대까지 잡으며 일일 매니저이자 감독, 멘탈 코치를 자칭하며 함께했다.

“막상 참가자 대기실에 가니까 긴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격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미 다른 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참가자도 있었고요. 입장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으로 첫 예선 경기를 치렀는데 승리했어요. 해 볼 만하다는 생각으로 한 경기, 한 경기 임하는 사이 어느새 결승전인 거예요.”

오른팔 부문의 결승전, 역시 상대는 만만치 않았다. 경기는 3판 2선 승제. 우려와 달리 이상필 교도가 연달아 2연승을 하며 오른팔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제 남은 건 왼팔 부문. 왼팔 결승전은 상대 3명 중 2명을 이기면 우승하는 방식이었다. 이상필 교도는 연속으로 경기를 임했던 터라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 다행히 첫 상대를

이긴 후 1승을 챙겼다. 설 틈 없이 곧바로 두 번째 상대 선수와 경기를 해야 했다.

“힘을 많이 써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요. 버틸 대로 버티고 있었는데, 점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종덕 주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회장 저쪽에서 제 이름을 크게 불러줬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힘이 솟더라고요. 가뿐히 상대의 팔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양팔 통합 우승 시상식 끝나고 교위님께 바로 달려가서 상장을 보여드렸어요. 기쁨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교위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생각지도 못한 도전 목표를 심어주고, 그 여정을 기꺼이, 진심으로 함께해 준 ‘좋은 동료’의 힘을 여실히 느꼈다는 이상필 교도. 그렇게 두 사람의 꿈은 현실이 됐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

교도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이상필 교도는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처음부터 기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맨몸 운동을 통해 기초 체력과 체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맨몸 운동의 기본 동작인 팔굽혀펴기를 추천하는데, 신체 곳곳을 강화하는 전신 운동으로 초보자들도 올바른 동작만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또한 요즘에는 유튜브 운동 채널에서 다양한 루틴 운동을 소개하는데, 무작정 많은 동작을 하기보다 3~4가지 동작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신에게 맞는 동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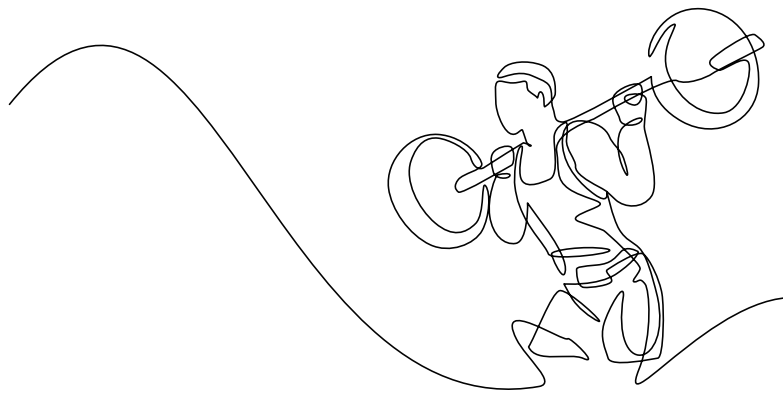
가감하는 것이 포인트. 평소 업무를 하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도 추천했다. 스쿼트나 계단을 두 칸씩 오르면서 런지 동작을 하면 코어를 탄탄하게 강화할 수 있고, 카프 레이즈 동작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교도는 앞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 파고들고, 이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운동법을 터득하고 싶다고 밝혔다. 당장 이번 10월에는 진안군 축제에서 진행되는 팔씨름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팔씨름 강자들과 겨루는 경험을 쌓아서 아마추어를 넘어 프로 대회에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내년 4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건강한 신체처럼 가정을 튼튼하게 잘 이끄는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직장 내에서 인정받는 교도관이 되고 싶다는 각오도 전했다.

“팔씨름대회에서 우승한 후, 인터뷰를 할 때 교도관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에 있던 청소년부 학생들이 멋있다고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 교도관이라는 이름과 사명감에 더욱 무게가 실리더라고요. 교도관으로서 자부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최근 법무부를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복지와 관련한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신 여러 선배님을 본받아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미의 공유> 코너 참여신청하기!
 <취미의 공유>는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동호회를 소개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취미 활동을 홍보해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 보세요!

참여신청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
 (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왼쪽부터 '영월패러글라이딩' 김대명 강사, 영월교도소 총무과 서찬우 교위, 유명림 교위, 이종석 교위, 김준일 교도, 황용섭 교감

짜릿한 하늘 비행, 쾌감 200% 패러글라이딩 완벽 가이드

영월교도소 총무과 5인
& '영월패러글라이딩' 이성민 대표, 김대명 강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
하늘을 비행하는 것도 그중 하나.
영월교도소 5인방이 패러글라이딩 도전에 나섰다.
전문가와 함께 창공에 온몸을 내던지며
쾌감을 만끽한 시간.
패러글라이딩 세계를 한층 깊이
경험한 현장을 함께했다.

글 김주희 사진 이정도

가을바람 타고, 하늘을 유영하다

패러글라이딩이란 낙하산과 글라이더를 개조한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해 즐기는 액티비티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보통 산 위에 자리한다. 나무 같은 장애물이 없는 데다 내달리기 좋은 경사면이 갖춰진 곳이 좋다.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영월은 패러글라이딩의 메카이자 성지로 불린다. 고도가 높고 맞바람이 적당히 불어오기 때문. 영월교도소의 총무과 황용섭 교감, 서찬우 교위, 이종석 교위, 유명림 교위, 김준일 교도가 평소 꿈꾸던 패러글라이딩 체험에 나섰다.

“관사를 오가면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하늘 위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독수리 5형제’라는 말이 있듯 우리 다섯 명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함께 도전하게 됐습니다. 체험을 앞두고 있으니 더욱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네요.”

패러글라이딩이 보급될 당시만 해도 전문가만이 즐길 수 있는 극한의 스포츠였지만 최근에는 교육과 체험이 대중화되면서 여가 생활로 자리 잡았다. 다섯 사람은 패러글라이딩 전문 업체 ‘영월패러글라이딩’의 이성민 대표와 김대명 강사를 만나 직접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해 보고 궁금한 점을 물었다. 전문가의 도움말을 가이드 삼아 비행 준비를 마친 이들이 도착한 활공장은 별마로전문대로, 높이는 무려 800m에 달한다. “준비됐나요? 이제 달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전문가의 우렁찬 외침에 내리막길을 힘껏 내달린다. 네땀 걸음 뛰었을까. 어느새 몸이 부웅, 하늘로 떠올랐다. 글라이더는 상승기류를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른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기니 하늘의 일부가 되어 멀리 나아간다. 어느새 비행을 마친 글라이더가 착륙장에 속속들이 도착한다. 마지막 주자까지 손조롭게 땅에 닿자 이날의 도전은 ‘무사 전원 성공’이라는 뿌듯한 성적표를 받았다.

Paragliding



이것이 궁금하다! Q&A



Q 패러글라이딩의 매력이 궁금합니다. 또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하기 좋은 유명한 성지도 추천해주세요.

A 패러글라이딩은 별도의 동력 장치 없이 활강하는 액티비티입니다. 다른 레포츠와 확연히 다른 점은 온몸으로 하늘을 난다는 거죠. 무동력으로 높게는 2,000~3,000m까지 날아오르는 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바람을 가르며 발아래로 펼쳐지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어요. 기상의 흐름을 잘 읽고, 바다의 상승기류를 잘 이용하면 200km 거리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영월, 단양, 용인, 양평이 패러글라이딩 성지로 이름나 있습니다.

Q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A 패러글라이딩은 바람을 타고 상승하는 원리를 활용하는 비행 기술입니다. 따라서 상승기류가 강한 날이나 시간이 좋은데요. 보통 일교차가 큰 날에 상승기류가 강하게 형성됩니다. 지형의 경우, 나무, 바위 등의 걸림돌 없이 앞이 탁 트여 있으면서 경사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Q 일반인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 다가가기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처음에는 익스트림 레포츠라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활공장에 올라가면 겁을 먹고 주춤주춤 달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속도가 빠를까 봐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서 발을 떼고 이륙하는 순간에는 속도가 높지만, 하늘에 떠 있을 때는 의외로 속도가 느리거든요. 오히려 진공 상태에서 머무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Q 패러글라이딩 입문자가 자신의 장비를 구입할 때 추천해 줄 제조사나 참고할 부분이 있을까요?

A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글라이더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라이더 제작 업체 '진글라이더'는 세계 시장 60%를 점유할 정도죠. 숙련된 재봉 기술로 완성된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정교한 것이 특징으로 초보 글라이더들에게도 안전합니다. 또한 나중에 고장 나거나 줄이 끊어질 시 A/S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Q 패러글라이딩 관련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나요? 또 자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를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패러글라이딩을 먼저 경험해 보고 싶다면 전문 강사와 함께 2인 1조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에 본격적으로 입하고자 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단법인 한국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초급, 지도자 등의 단계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가 조정을 하고 싶다면 캐노피, 하네스, 헬멧, 보조 낙하산, 무전기를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MINI INTERVIEW

영월패러글라이딩
이성민 대표


“모두 처음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하셨습니다. 강사의 안내 사항도 잘 숙지해 주셔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계기로 패러글라이딩을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묻다> 코너 참여 신청하기!

<전문가에게 묻다>는 고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평소 고민이나 궁금했던 사항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코너입니다. 은퇴 설계, 재테크, 자녀 교육, 취미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
으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MINI INTERVIEW

영월교도소
황용섭 교감

“우리가 근무하는 영월교도소가 보일 만큼 영월 관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월교도소
서찬우 교위

“처음에는 패러글라이딩이 잘 퍼지지 않아 재시도 끝에 성공했는데요. 1000m 상공의 하늘과 구름 사이를 날았다는 짜릿한 성취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영월교도소
이중석 교위

“천지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땅에서 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마음까지 탁 트이는,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영월교도소
유명림 교위

“도전하고 싶던 분야였는데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더욱 즐거웠어요.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영월교도소
김준일 교도

“경사진 길을 내달리면서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착륙하고 나니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도전의 참맛을 즐기고 갑니다.”





톤온톤 시티룩

애쉬 그레이 톤 재킷에 가벼운 베이지 니트 티셔츠와 라이트 그레이 팬츠를 갖춘 톤온톤 시티룩 스타일.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 깔끔하고 더욱 슬림해 보인다. 브라운 더비슈즈로 컬러 포인트를 줬다.

가을이니까 멋쟁이 신사처럼

어느덧 가을이다. 맑은 하늘과 선선해진 바람이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풍성하게 느끼게 해준다.

‘멋’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을은 스타일을 뽐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 황세영 교감이 ‘가을 멋쟁이’로 변신했다.

글 정리희 사진 이정도 스타일링 박송이 헤어&메이크업 김연주



“**몇 년 후면 정년인데, 퇴직하기 전에 기념으로 제 모습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시도하지 못할 일인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사진을 찍어볼 기회이기도 하고요.**”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한 추억 만들기

패션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스타일이라도, 색상을 조금만 달리하면 이전과는 확 달라진 ‘느낌’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일과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때가 많다. 황세영 교감도 마찬가지였다. 비슷한 연배의 성인 남성들과 비슷하게 평소 입고 다니는 옷들은 대부분 배우자가 골라줬다. 그마저도 출근할 때는 ‘편한 옷’ 위주로만 선택해 왔다.

“저도 편한 옷을 좋아하지만, 아내도 캐주얼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내 덕분에 주변에서 ‘나이보다 젊게 입는다’고 종종 이야기도 해줍니다. 저도 초반에는 낯설었는데, 점점 아내 말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평소 패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황세영 교감이 ‘나도 패션왕’에 도전한 계기는 주변 동료들의 추천이 컸다. 특히 적극적으로 권유한 이는 강릉교도소의 패셔니스타인 김정민 교사와 새내기 교도관인 정성훈 교도였다. 혹시나 주책으로 보일까 걱정하는 그에게 두 사람은 “꼭 참여해서 멋지게 변신도 하고 좋은 추억도 쌓아보라”며 용기를 심어줬다.

“사실 제가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내 교도관이 ‘교감님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고’ 용원을 해주더라고요. 속으로 긴가민가해서 아내에게 물었는데, 아내도 ‘기억에 남을 일’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내심 제 마음 깊은 곳에서도 조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후면 정년인데, 퇴직하기 전에 기념으로 제 모습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시도하지 못할 일인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사진을 찍어볼 기회이기도 하고요.”

Change your Style

- 외모를 가꾸는 데 관심이 없어 축복받은 유전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교정인.
- 삶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교정인.
- 멋지게 변신시켜 드리고, 월간 <교정>에 소개해 드립니다.
- correct2015@naver.com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나이에 주저하지 않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1991년 4월에 임용된 그는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 근무를 시작해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를 거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강릉교도소로 왔다. 임용 초창기에는 부지런히 적응해야 했던 교대 근무도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덧 부서에서도 최고참이 됐지만, 기강을 앞세우기보다 경험을 나누려고 애쓰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교정공무원 선발 공고를 보고 동네 친구와 함께 지원했어요. 친구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할 기회는 없었지만, 둘 다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록 친구와 근무지는 다르지만, 같은 직업군의 고충을 이해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마음 한편에 든든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눈에 띄는 열정을 강조하지 않아도, 일상을 활기차게 채우는 에너지는 여전히 넘친다. 강릉교도소로 발령받은 후에는 트래킹을 시작했다. 특히 강릉에는 ‘바우길’이라는 트래킹 코스가 잘 조성돼 있다. 황세영 교감은 그중 17개 코스로 구성된 구간의 바우길 일반 코스를 세 차례나 완주하고, 현재는 네 번째 완주를 준비 중이다.

“예전에도 종종 트래킹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2020년 8월에 강릉교도소로 오면서, 그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트래킹을 시작했습니다. 교정공무원 업무 특성상 야근을 하고 나중에 비번을 받으면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많거든요. 여유 시간에 산으로 들로 트래킹 하러 다니면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시간도 잘 가더라고요.”

강릉교도소는 강릉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홍제동에 있다. 황세영 교감은 “교도소 초입부터 좌우 양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아름드리 가로수길은 봄이면 벚꽃이 만개하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장관이며, 겨울엔 설경이 너무 아름다워 감탄이 절로 나오는 길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교도소 외부 정문 주변에 생태습지공원이 조성돼 있어 시민들이 휴식공간이자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황세영 교감은 “그만큼 지역사회와 친화적인 곳이 바로 강릉교도소”라고 소개한다. 특히 강릉은 동해와 대관령, 선자령 등 천혜의 자연이 가까이 있는 곳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레저와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트래킹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무게도 감량할 수 있었다. 덕분에 이참에 한결 달라진 옷발을 확인해 볼 기회가 생겼다.

가을맞이 색다른 스타일 변신

이날 황세영 교감의 스타일 변신 주제를 요약하자면, ‘가을 도시남’이라 할 수 있었다. 180cm에 가까운 키 덕분에 평소에도 일상복을 무난하게 소화해 온 그였지만, 이제껏 시도해 보지 않았던 의상들을 보니 조금 긴장도 된다. 가볍게 메이크업을 받고 헤어스타일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한결 깔끔해진 느낌이다.

첫 번째 시도한 스타일링은 은은한 색상의 시티보이 룩이었다. 자연스러운 뉴트럴 컬러의 옷차림은 평소에도 종종 즐겨 입었지만, 깃 달린 셔츠 대신 티셔츠를 입고 체형에 맞춘 바지를 입으니 ‘멋짐’이 더 짙어진다. 처음에는 카메라를 어색해하던 황세영 교감도 차츰 표정이 자연스러워진다.

이어진 두 번째 스타일링은 ‘가을 패션’이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상징하는 의상은 단연 트렌치코트. 이전에도 가을이면 트렌치코트를 종종 입었지만, 소매에 장식이 붙은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께 매치한 스웨터와 바지의 채도도 좀 더 강렬해졌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눈길을 끄는 색감이 황세영 교감의 얼굴을 좀 더 환하게 만들어준다. 그의 변신을 곁에서 지켜보던 배우자의 입가에도 기분 좋은 미소가 어린다.

“초반에 망설였던 것이 무색할 만큼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멋지게 변신시켜준 전문가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 패션을 바꾸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이날 하루 용기 낸 덕분에, 황세영 교감의 인생 사진첩이 한층 풍성해졌다.



그것이
클름
하다

강릉의 트래킹 및 산책 코스를 추천해 주세요!

“해발 1100m 고산지대에 있는 ‘안반데기’에 요즘 별 보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8월이면 온 산이 무럭무럭 자라는 고랭지 배추밭을 볼 수 있으니, 내년쯤 둘러보세요. ‘옥계해변’은 소나무 숲 아래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넓은 백사장이 있는 데다 인파도 적어서 들르기 좋습니다.”



가을 여행 룩

클래식한 트렌치코트와 페도라로 연출한 가을 여행 룩. 브릭 컬러 니트와 셔츠, 브라운 컬러 치노 팬츠와 보트슈즈로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글 김OO

이곳에서의 생활도 1년이 되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어려운 임신 끝에 제왕 절개로 태어나 외동딸로 힘들게 자라왔습니다. 늘어난는 빚더미에 폭력과 폭언이 일상이었던 아버지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를 열심히 키워내려 애쓰셨던 어머니, 그리고 반지하 고시원을 전전하며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도망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물이 싫었습니다, 또한 가난은 더욱 싫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아픈 어머니의 모습도 한없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려운 삶을 견뎌내며 살아가던 중 한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중국 생활을 권해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다'라고 생각하며 중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과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사랑의 따뜻함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며 외로운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힘들고 피곤한 건 중요하지 않고 닦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심부름으로 통역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 일이 범죄에 이용되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렇게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은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품고 이곳으로 도망쳐 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무섭고 무서운 악몽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나의 잘못된 행동이 사회악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저로 인해 피해자

가 하나 둘 생겨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싶어 자진 출국을 결심하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죽을 것처럼 괴로웠고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더 붙어 어머니를 슬픔 속에 또 빠뜨리게 한 제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용서를 구하기 위해 가슴으로 외치며 새깁니다. 후회와 반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고찰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채워나가 보려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회개와 반성으로 다짐하며 오늘도 홀로 기도도 기다려 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영정사진으로 만나야 하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반성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사회에 나가 구성원이 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또한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모든 것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두 줄의 문장을 벽에 붙이며 달라질 제 자신에게 오늘도 다짐합니다.



<파친코>를 감상하고

글 청주교도소 교감 박순용

두려움은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축소하거나

심지어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부인·회피·축소·전가를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왜곡'만큼 적절한 단어가 있을까?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미화까지 하고 있다.



지난 3월, Apple TV+에서 방영한 드라마 <파친코>가 큰 인기를 누렸다. 무엇보다 배우들의 신선함과 탄탄한 연기력, 그리고 원작을 바탕으로 그려내는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미국의 자본까지 더해져 영미 유럽권에서 크게 호평받았다. 특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제의 만행과 우리의 피해를 전 세계에 매우 고급스럽게 전파한다는 면에서 우리에게도 큰 공감과 호응을 얻는 작품이다.

일제의 만행과 관련한 기존의 영화와 드라마는 일본인들을 사이코패스나 우리와는 달리 험악한 외양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곤 한다. 굳이 그 스토리에 몰입하지 않다가 작품 중간에 어느 한 장면만 보더라도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일본인 또는 친일파인지 금세 구분할 수 있게 그려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파친코에서는 일본의 만행을 캐릭터의 이미지로 묘사하거나 직접 화면으로 보여주는 대신 배우의 연기와 대사로 그려냈다.

우리는 그것이 연기와 대사로 표현되고 있음을 곧바로 알아채지만 과연 우리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서양인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 <파친코>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OTT 서비스 중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좀 더 알고 싶고 궁금하다면 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기엔 오히려 직관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점이 연출의 고급스러움은 물론 영리함마저 느껴지게 한다.

개인적으로 <파친코>를 시청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치밀어 오르는 고품격 분노(?)는 기존의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신선한 감정이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파친코>를 '반일 역사 왜곡 드라마'라는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최대한 홍보를 자제하고 있다고 한다.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고 왜곡을 시도하

는 일본의 행태가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들이 왜 틈만 나면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필자는 작년까지 청주심리치료센터에서 근무했다. 당시 고위험군 성폭력 사범의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특징을 정리한 적이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해의 사실이 구체적이고 범죄의 내용이 흉악한 사람일수록 본인이 저지른 범죄 그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보다는 남들에게 알려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이러한 두려움은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축소하거나 심지어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부인·회피·축소·전가를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왜곡'만큼 적절한 단어가 있을까?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미화까지 하고 있다.

우리는 수용자에게 그러하듯 일본에게 항상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그러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는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과 마주한 결과로써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다. 결국 일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다. 그러나 일본은 언제나 그랬듯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일본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 <파친코>가 더욱 크게 흥행하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기피'에서 '기반'으로, 교정시설의 미래를 설계하다



founda tion

교정시설은 사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반시설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정시설을 기피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 2016년부터 꾸준히 교정시설을 연구해 온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백진 교수는 교정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기피'에서 '기반'으로 변화시키고 보다는 교정시설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김인규

국내 최초 '홀형 교도소'의 탄생을 뒷받침하다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국군교도소에서 신축 수용동 준공식이 열렸다. 새롭게 지어진 수용동 내부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교정시설과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긴 복도를 중심으로 수용거실이 죽 늘어선 전주형(Telephone pole type)이 아닌, 중앙 홀에 위치한 공용 휴게실을 중심으로 독거실과 혼거실이 빙 둘러서 배치된 홀형(Hall type) 구조로 구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 널찍하게 마련된 창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고, 초록빛 공기정화식물이 곳곳에 설치됐다. 독거실의 비율을 76%로 크게 높인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군교도소의 드라마틱한 변화, 그 배경에는 백진 교수가 있다. 국군교도소 신축 수용동 진행을 맡은 담당자가 그에게 자문을 요청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완성된 국군교도소의 신축 수용동은 교정시설 선진국인 덴마크의 방송국에서 취재했을 정도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저는 기존의 구조적·공학적 관점에서의 건축을 넘어,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과 도시를 지향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교정시설 또한 인권 친화적이고 교정교화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보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국군교도소에서 저의 이런 생각을 잘 반영해 주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국형 홀형 교도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6년간 건축학도들을 가르치다가 지난 2010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부임한 백진 교수는 서울대학교 건축도시이론연구실과 건축도시연구센터의 운영 책임자이자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으로서 다채로운 삶의 모양을 담은 건축물과 도시를 우리나라에 널리 퍼트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철학과 연구 방향은 그를 자연스럽게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었다.

백진 교수





“사람들은 막연하게 교정시설을 기피시설로 취급하지만, 교정시설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중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꾸준한 연구로 깨달은 교정시설의 중요성

그 또한 어느 사람들과 같이 교정시설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2016년, 교정본부의 한 교정공무원이 백진 교수를 찾았다. 교정시설의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위해 전미교정협회(ACA·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에서 발간한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에게 감수를 부탁한 것이다. 제안을 받아들인 뒤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나 중요한 교정시설을 살펴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보통 사람들은 교도소에 갈 일이 없는 데다가 대부분 도시 외곽으로 옮겨져 있기에 교정시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계기가 없습니다. 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때마침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감수를 맡게 되면서 교정시설이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사람들은 막연하게 교정시설을 기피시설로 취급하지만, 교정시설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중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후 백진 교수는 지금껏 꾸준히 교정시설에 대해 연구해 왔다. 미국·일본·덴마크·싱가포르 등을 다니면서 교정시설을 직접 견학하고 교정시설을 설계한 건축가들을 인터뷰했다. 법무부·교정본부와도 끊임없이 교감하며 보다 바람직한 교정시설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은 물론, 교정시설에 붙은 ‘기피’라는 단어를 ‘기반’이라는 말로 바꾸는 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결심했다. “우리나라는 도시의 깨끗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요소들만 보여주고 노력하는 경향이 강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시설들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려 하죠. 이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심하면 지역 이기주의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 17세기의 베니스는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다양하게 보여줬다. 산마르코항 연안에서 베니스를 조망하면 화폐·주조장·인문·도서관·산마르코광장·산마르코성당·사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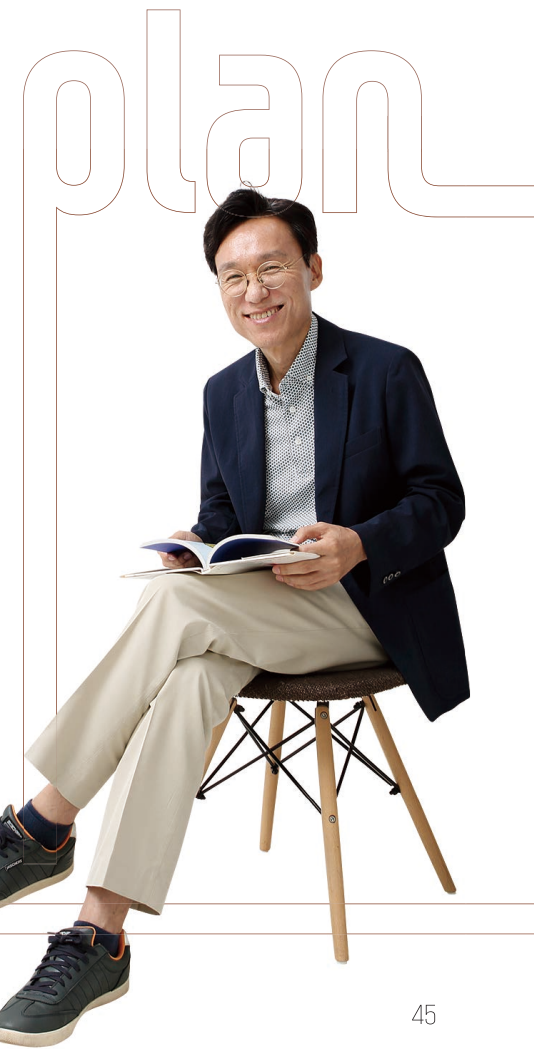
등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교도소도 도심의 풍경에 포함돼 있었다. 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내보임으로써 인생을 한층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여러 모양의 사회 구성원들을 기꺼이 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다.

‘삶의 일부로서의 교정시설’을 향한 노력

교정시설을 우리 사회의 주요 기반시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사법적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특히 미결수가 모여 있는 구치소는 수용자들이 수시로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기에 검찰·법원 등의 사법기관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덕분에 미결수들이 지하 통로로 법원과 검찰청을 오가며 효율적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는다. 백진 교수가 ‘삶의 일부로서의 교정시설’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동부구치소를 꼽는 이유다. “한편 교정시설의 질을 꾸준히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용자에게 있어 교정시설은 곧 주거시설입니다. 24시간 내내 한정된 공간에서 먹고 생활하고 자는데, 이런 공간이 불편하고

생활하기 힘들면 반발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혼거실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면 그 안에서 위계질서가 생기고, 출소 후 함께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결 쉽죠. 반면 독거실이 늘어나는 등 교정시설의 환경이 좋아지면 교정교화 효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교정교화의 효과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사회의 안전도와 효율성,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질적 개선은 교정시설 밖에 있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진 교수는 현재 건설 중인 화성여자교도소 설계 자문 시 교정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다수 전달했다. 덕분에 보행로와 차로의 입구 및 동선 분리·독거실 비율 향상·양육유아실 배치·수용자 입소소 영역과 의료 영역의 근접 배치·독립성이 보장된 직원 휴게실 등을 적용한 한층 진보된 형태의 교도소가 지어지고 있다. 백진 교수는 이러한 교정시설의 질적 개선 노력과 동시에, 강·저서 출간 등을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힘을 계획이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교정시설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future

안가면 후회할 단풍 명소 보이는 건 '환함' 뿐

꽤나 더운 여름이었다. 비도 제법 소란스럽게 내렸다.
그러던 것이 기특하게도 말이다. 어느새 가을이란 잔칫상을 풍성하게 펼쳐놓았다.
잘 익은 대추처럼 탐스럽게 붉은 단풍이라니, 반질반질 노랗게 윤 오른 단풍이라니,
가을은 그렇게 붉고 노란 것들의 유혹으로 유별난 계절이다.

글: 사진 이서목 여행작가



'하얀' 가을 숲을 거닐다

강원 인제, 속삭이는 자작나무숲

가을은 산천이 제 색으로 빛나는 계절이다. 자연 어느 곳이라도 화려한 색을 보이는 때. 여기에 단풍까지 펼칠 내려 쌓이니 천지가 다 눈부시다. 하지만 여기, 가을에도 하얀 설국이 있다. 바람이 휘돌면 수만 개의 흰 가지들이 수련대며 속삭이는 곳, 인제에 있는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이다. 희고 보드라운 수피의 자작나무 70만 여 그루를 상상해 보자. 누군가는 자작나무숲의 이런 풍경을 두고 '노인의 나이 든 두피에서 뺀어 나온 머리털' 같다고 했다. 그만큼 흰색 특유의 질감이 잘 살아 있는 숲이다.

그런 자작나무숲이 더욱 파스하게 수련거릴 때는 노란 단풍이 눈처럼 쏟아져 내릴 때다. 숲의 가장 아늑한 지점으로 들어가 노란 용단 위에 등을 대고 누우면, 파란 하늘에서 자작나무 노란 잎이 눈처럼 날려 몸 어딘가에 살포시 내려앉는다. 그때가 마침 오후의 햇살이 한창일 때라면, 한 20여 분 까무룩 낮잠에 빠져 봐도 좋겠다. 주차장에서 자작나무숲까지는 편도 3.2km 거리로, 숲 입구까지는 1시간가량을 걸어야 한다. 탐방 적기는 단풍과 낙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10월 20~30일경.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11월~2월 14:00)까지 탐방 가능하며, 월·화요일은 휴무다.

계곡에 깃든 가을을 만나요, 방태산



방태산(1,444m)은 '가을이면 무조건 가라'는 단서가 붙을 만큼 단풍빛이 고운 곳이다. 특히 '이 폭포 저 폭포'라는 이름이 붙은 이단폭포가 절경이다. 높이가 각각 10m와 2m인 두 개의 폭포 주위로 꽃보다 곱고 화려한 단풍이 가득 핀다. 붉은 단풍을 밟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낙엽이 무성한 관찰로 구간(2km)도 손잡고 천천히 걸으며 산책하기 좋다.

**멀미 나도록 찬란한 물가
경북 청송, 주산지**

주왕산 뒤편에 있는 주산지는 몽환적인 분위기의 가을을 선물하는 곳이다. 조선 숙종 때 만들어진 농업용 저수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웅숭깊은 풍경을 보여주는 곳. 연못 안엔 20여 그루의 왕버드 나무가 정령처럼 잠겨 있다. 수염이 허연 신선 같기도 하고, 기묘하게 자라 연못을 지키는 사천왕 같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주산지에선 누구나 걸음을 멈추며, 숨을 멈추고 풍경에 몰입하게 된다. 바람마저 정지한 채 가을 안에 붉게 누워 고요한 느낌이다.

주산지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울 때는 새벽이다. 숲은 숲대로 산은 산대로 물은 물 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묵언 수행을 하는 시간. 그 시간 속을 자유롭게 떠도는 건 안개가 유일하다. 수면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상하 대칭을 이룬 데칼코마니 작품 속을 반투명의 안개가 떠다니는 모습이 절정의 단풍과 어우러진다. 그 묘하고 아련한 풍경 속에 서고 싶다면 가을날의 청송을 놓치지 마시라. 더불어 이 계절엔 기암과 단풍의 조화가 절묘한 주왕산도 찾아볼 일이다. 단풍도 붉고 길도 붉고 계곡도 붉어 기암마저 붉게 물들고 마는 자리다. 그 눈부신 조화 속에서 몸살같이 뜨거운 추병(秋病)을 앓다 와도 좋겠다.

약수로 끓인 '닭불백'을 아시나요?



청송은 약수로 유명한 곳이다. 사이다처럼 싸한 맛에 철분이 가득한 약수다. 이 철분탄산수에 한약재를 듬뿍 넣어 고아 낸 닭불백이 별미다. 약수 특유의 탄산 맛이 닭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해 더욱 맛있다. 닭불백과 함께 '닭불백' 세트로 나오는 닭불고기 맛도 좋다. 백숙을 고아 내고 남은 닭고기 살을 고추장 양념에 버무린 후 숯불에 구워내 매콤달콤하다.



**음식으로 치자면 '단풍의 성찬'
전북 정읍, 내장산**

어쩌면 사람 구경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름난 곳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딱 한 군데만 단풍놀이를 가야 한다면 내장산이 어떨까. 내장산엔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산책하듯 올라 구경할 수 있는 단풍 코스가 많다. 여기에 내장산 전망대로 이어지는 케이블카까지 운행되니 금상첨화다.

그러나 웬만하면 그리 편히 가지 마시라. 내장산은 일부러라도 걸어야 할 만큼 산길의 풍치가 매력적인 곳이다. 추령에서 시작해 내장 9봉을 종주하는 산길을 으뜸으로 끊지만, 가족들이 단풍 구경을 하기에는 '일주문~내장사~원적암~벽련암~일주문'에 이르는 3.6km의 트레킹 코스가 제격이다. 사찰과 암자 등을 두루 거치는 데다 그 유명한 내장사의 108그루 단풍터널까지 끼고 걸어 가을 색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단풍터널에 이어 만나는 숲길도 호젓해 반갑다. 바닥은 낙엽이 그득하고 하늘로는 단풍이 울창하다. 눈에 띄는 볼거리는 벽련암의 '하늘바다.' 내장산 전망대가 훤히 보이는 벽련암에서는 대웅전 앞 누각에 누워보는 것이 필수다. 누워 서래봉 쪽을 바라보면 '하늘이 바다로 보이는' 오묘한 풍경과 마주할 수 있다. 똑바로 서서 보는 단풍도 현란한데 거꾸로 보니 더 이득하다.

단풍 속에 폭 담겨 있어요, 무성서원



전북 유일의 서원이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곳의 서원 중 한 곳으로, 이곳 또한 단풍이 곱다. 특히 키 큰 나무들이 많아 건물 주위가 가을 동안 노랗거나 빨갱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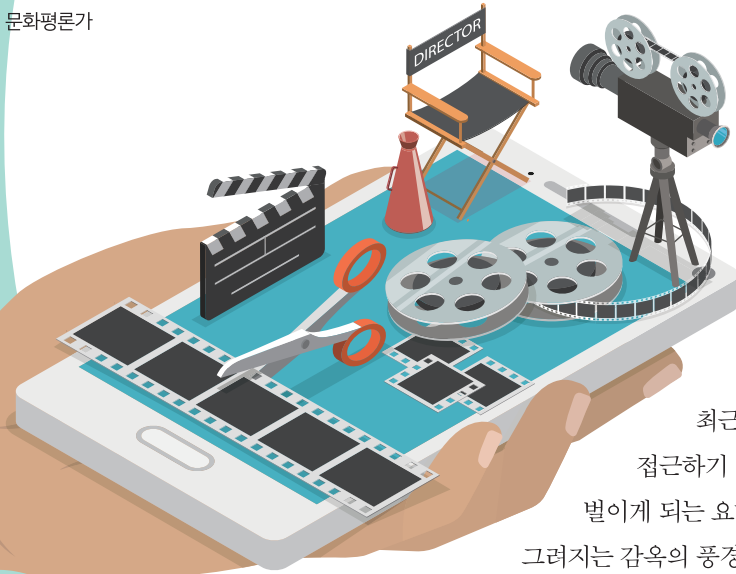
서원이 자리한 곳이 마을 중심인 점도 이채롭다. 덕분에 서원의 배경보다 서원에 속 깊게 배어든 정신의 무늬를 더 오래 보게 된다. 여타의 서원들과 건물 배치가 다른 점도 눈에 띈다.

콘텐츠 속 교도소 이미지, 이대로 괜찮을까

비현실적 이미지로 소비되는 드라마 속 교정시설

우리네 드라마나 영화에서 교도소는 현재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과연 실제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글 정덕현 문화평론가



〈인사이드〉와 〈빅마우스〉의 비현실적인 교도소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인사이드〉는 교도소에 수감된 인물을 접근하기 위해 언더커버가 되어 그곳에 들어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게 되는 요한(강하늘)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런데 여기서 그려지는 감옥의 풍경이 너무나 낯설다. 놀랍게도 이 감옥에서는 교도소장부터 모든 교도관들이 공모해 수용자들의 도박판을 돕는다. 거기에는 판의 규모에 따라 레벨까지 나뉘져 있는데, 이른바 VIP들은 마치 호텔 카지노 같은 곳에서 도박을 한다. 또 이 교도소에는 이들 VIP들만 지내는 특별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그곳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호텔처럼 꾸며져 있다. 주인공 요한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박을 배우고 최고 레벨 도박판까지 들어가 결국에는 교도소를 접수한다.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하는 공간인 교도소에서 오히려 범법 행위인 도박판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여기에 교도소장과 교도관들 그리고 정계 인물들까지 간여한다는 이야기. 도무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교도소의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개연성 없는 교도소의 풍경은 〈인사이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빅마우스〉도 마찬가지다. 이곳에도 〈인사이드〉처럼 VIP 수용자들을 위한 지하 비밀 공간이 존재하고 그곳은 마치 호텔 바처럼 꾸며져 있다. 게다가 이 수용자들은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의 묵인 하에 살인까지도 벌이는 범법 행위를 자행한다. 이 드라마는 마약왕이자 회대의 사기꾼으로 알려진 빅마우스라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간 변호사 박창호(이종석)가 그곳에서 생존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이들에 대한 처절한 복수를 해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 MBC



© JTBC

〈인사이드〉와 〈빅마우스〉가 그리는 비현실적인 교도소는 모두 주인공의 생존이나 성장 서사를 위해 현실성과 상관없이 소비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범법자가 아닌 바에야 실제 현실을 경험할 수 없는 교도소라는 세계. 그래서 이 공간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다소 과장되고 드라마틱하게 허구화되곤 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비현실적인 과장은 선을 넘는 느낌이다. 〈닥터 프리즈너(2019)〉 같은 작품에서 교도소는 권력 있는 자들이라면 언제든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누구든 쉽게 죽이거나 복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졌고, 영화 〈프리즌〉이나 〈샤크더 비기닝〉에서는 계급구조를 갖는 또 하나의 왕국으로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때론 자기 성장을 이루는 판타지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과연 이런 과장된 이미지는 문제가 없는 걸까.

〈백패커〉가 담은 교도관들의 고충

물론 모든 콘텐츠들이 교도소를 그린 비현실적이거나 극악한 범죄와 비리가 벌어지는 공간으로 그린 건 아니다. 정반대로 교도소를 인간적인 정과 사랑의 교화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그려낸 작품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하모니〉는 합창이라는 소재를 통해 수용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과거로부터 벗어나 현재로 빠져나오는 교화의 과정을 잘 담아낸 작품이었고, 〈7번방의 선물〉은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딸 바보 용구(류승룡)와 그가 몰래 반입한(?) 딸 예승이(갈소원)로 인해 수용자들이 벌이는 따뜻한 인간애를 다룬 작품이었다. 또 〈슬기로운 감빵생활〉 같은 작품 또한 어찌다 교도소에 오게 된 프로야구 선수가 그곳에서 다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여러 수용자들과의 갈등과 교류를 통해 그린 작품이었다. 물론 이 작품들의 설정은 다소 비현실적인 판타지가 담겨 있지만, 콘텐츠적 허용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허구였다. 최근 〈인사이드〉나 〈빅마우스〉 같은 작품들의 과도한 과장과는 사뭇 다른 '선 안의 허구'였다는 것이다.

흔히들 작품은 작품으로만 보자고 말하지만, 콘텐츠가 현실과 맞물려 오해와 편견을 만들어내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방영됐던 tvN 〈백패커〉가 찾았던 경북 북부제2교도소에서 한 교도관이 꺼내놓은 이야기는 이런 현실이 얼마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힘들게 만드는가를 잘 보여준 바 있다. 전국 오지를 찾아가 특정한 사연을 가진 분들에게 그들이 요청한 방식대로 식사를 대접하는 콘셉트를 가진 이 프로그램에서 백종원이 교도관에게 가장 힘든 점이 뭐냐는 질문에 그들은 '고립감'이나 '위험'만큼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이라고 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들이 있어 우리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이 존재해야 수용자들이 단지 사회와의 격리만이 아니라, 교화를 통한 새로운 삶도 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드라마나 영화가 장르화되고 그래서 갈수록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교도소를 그려내게 된 것이지만 이러한 선을 넘는 과장들이 야기한 비현실적인 이미지가 실제 현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우리 교도관 나쁜 사람들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도관이 남긴 이 말의 여운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 tvN



© CJ 엔터테인먼트



© tvN

가을 바다의 깊은 맛 꽃게와 대하



붉은색이 빛을 내며 가을이 도래했음을 알린다.

비단 만산홍염 단풍만이 붉은 것은 아니다. 불에 달으면 선홍색을 내는 새우와 꽃게가 가을 바닷속에 있다.

한반도의 가을은 단풍뿐만이 아니라 갑각류 축제도 열린다.

글. 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장



시각과 미각을 사로잡는 꽃게

꽃게는 먹기 다소 번거롭지만 그 맛이 훌륭해 ‘국민 갑각류’로 불린다. 익으면 꽃처럼 빨갱지만, 그 이유로 붉은 이름이 아니다. 꽃게는 사실 꽃(串)계에서 나온 말로 꼬트머리가 가시처럼 뽕뽕하게 돌아나 있다. 희고 부드러운 살을 머금으면 당장 맛이 피어나니 이름에 꽃을 붙이기에 모자람이 없다.

꽃게는 연평도 등 서해안 모래에 주로 서식한다. 기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유영을 한다. 네 번째 다리가 마치 노처럼 생긴 유영지(游泳肢)인데 이를 휘저으며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달려든다. 사냥할 때는 세고 단단한 집게발을 이용한다. 대게와는 달리 알까지 먹을 수 있고 향이 매우 진해 다양한 요리에 쓰인다. 찜으로 먹기도 하고 국물 재료로도 쓰인다. 된장국에 넣으면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아예 꽃게만 넣고 시원하게 끓여 내는 꽃게탕도 있다.

오랜 역사를 함께해 온 음식, 간장게장

간장게장은 역사가 오랜 음식이다. 원래는 게젓, 또는 동난지라 불렀다. 《청구역언(靑丘永言)》에는 게장(동난지)을 파는 장사꾼을 다룬 시가 등장한다. ‘겉은 빼요 속은 고기, 두 눈은 하늘을 향하고, 앞으로 가고 뒤고 가고 작은 다리 여덟 큰 다리 둘, 간장 맛이 아스스한 동난지 사시오’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한 이 시는 게의 특징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밥도둑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짭짤하고 감칠맛이 도는 밥 한두 공기는 그냥 들어간다. 게다가 게딱지에 든 내장은 어떤 것보다 감칠맛이 뛰어나다. 게장 내장을 싹싹 긁어 밥을 비비면 다시 한 공기의 밥이 필요해진다.

감칠맛의 대명사로 부르는 새우

요즘은 대하 역시 감칠맛이 터져 나올 때다. 긴 수염, 굵은 허리 탓에 바다의 늑은이, 중국과 일본에서 새우를 일컬어 해로(海老)라 불렀다. 우리에게 낯선 입맛을 함께 한 밥상의 벗이다. 새우로 젓을 담아 팔면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까지 입맛을 돌게 했다. 젓새우가 아닌 대하는 구워 먹는다. 10월이 맛의 절정으로 굵은소금 갈아 불을 지피고 새우를 넣으면 팔딱팔딱 뛰다 어느새 탱글탱글한 새우구이가 된다.

보리새우과에 속하는 대하는 연회색 몸에 진회색 작은 점들이 종종 박혀있다. 하늘로 솟구친 빨과 수염이 길다. 늦봄부터 서남해안 연근해에서 어린 조개 따위를 먹고살다가 11월이면 떠난다. 양식이 되지 않는 대하의 대체품으로 들어온 흰다리새우는 사실 소비자들에게

더욱 익숙하다. 이름처럼 다리가 하얗고, 대가리 빨과 수염이 대하보다 짧다. 주로 양식이지만 살집이 튼실하고 수조에서도 오래 살아 새우구이와 새우회를 파는 가게에서 주로 쓰는 종류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새우가 강장식품이라 ‘혼자 여행할 때 새우를 먹지 말라’고 썼다. 실제 새우에는 열에 의해 붉은 색소로 변화하는 단백질(아스타크산틴)이 있는데 노화방지와 항산화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타우린 성분도 많아 피로회복과 자양강장에 좋으며, 아르기닌도 풍부해 스테미나 향상에 도움이 된다. 콜레스테롤이 많아 혈압에 좋지 않다는 오명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다.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함유해 있고, 대가리와 껍질 부위에는 키토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감시키는 작용을 한다.

지역별 다양한 종류의 새우

분홍빛에 달달한 맛으로 유명한 도화새우는 횡감이나 초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 동해안 깊은 물에서 주로 잡히며 선어 상태로 차가운 곳에서 숙성시키면 찰떡처럼 차지고 깊은 단맛을 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유명세를 치른 ‘독도새우’ 역시 도화새우의 한 종류다. 독도 인근 심해에 사는 독도새우는 성체 크기가 무척 커서 음료수 병 정도의 크기도 쉽게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 즐겨먹는 닭새우(가시배새우)는 범배아목의 생물로 분류상 새우에 들지 않는다. 먹어보면 맛도 다르다. 닭새우와 가시배새우 등이 있는데 특유의 향과 쫄깃한 식감이 우리가 아는 새우와는 좀 거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 새우라 부르고 있다.

붉은빛 새우와 꽃게에 살이 차오르면 이제 가을도 완전히 익어간다. 식욕의 계절, 제철 맛은 새우와 꽃게가 뛰니 입맛 또한 덩달아 펄펄 뛰기 시작한다. 제철의 맛 좋은 식재료인 새우와 꽃게를 탐닉하러 떠나보자.

성범죄자 유형론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의 예측타당도 검증②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론
- IV. 분석결과
- V. 결론

IV. 분석결과

2. 성범죄자 유형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도 검증

전술된 분석결과와는 KSORAS가 아동 상대 성폭력사범과 성인 상대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차등적으로 예측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 별로 각각 별개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구성하여 예측타당도를 분석하고, 수정 개발된 유형별 평가도구의 예측타당도와 종전의 대상자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KSORAS의 예측타당도를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아동/청소년 대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구성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기존 KSORAS 문항 중 단순 로짓분석 결과,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재범여부를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를 우선 제외하였다. 다음으로는 법무부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활용 가능한 문항들을 추출하였는데, 대부분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PRAI-R)**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문항 선발 기준은 동일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10문항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약칭: KSORAS-MINOR)로 구성하였다. 문항별 가중치를 점검한 결과, 일부 문항의 가중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현재의 가중치와 변경된 가중치 적용시 전체 AUC에는 큰 변화가 없고, 기존 도구와의 비교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존 가중치법을 유지하였다. KSORAS-MINOR의 총점은 최소 1점에서 최대 14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은 5.26점 표준편차는 2.69점이었다.

김병배*

*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범죄교정학전공 교수
(bbkim7@kyonggi.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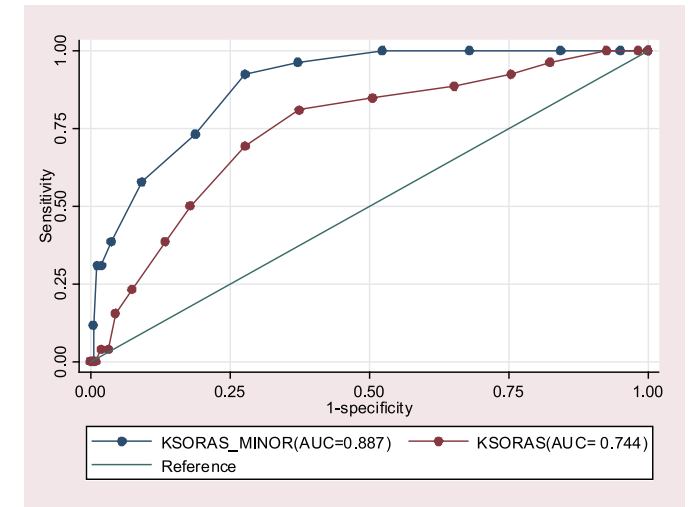
<표 7> KSORAS-MINOR 문항 구성표

문항	위험요인	코딩	채점	비고
1	혼인관계	혼인경험이 없는 혼인경험이 있는	1 0	기존
2	이전 성범죄 횟수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0회	5 4 3 2 1 0	기존
3	폭력 범죄 횟수	3회 이상 1-2회 해당사항 없음	2 1 0	기존
4	총 시설 수용기간	5년 이상 2년 이상-5년 미만 2년 미만	2 1 0	기존
5	본 범행 피해자의 성별	남성 여성	1 0	기존
6	본 범행 피해자의 수	2인 이상 1인	1 0	기존
7	전체 수용/감독 중 문제행동	해당 있음 해당 없음	1 0	기존
8	대인관계 부적응	원만하지 못함 원만함	1 0	기존
9	친구/지인 중 건전생활자	거의 없음 있음	1 0	기존
10	음주관련 범법행위	경력 있음 경력 없음	1 0	기존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만을 상대로 하여 KSORAS_MINOR의 재범예측 타당도를 기존 KSORAS의 재범예측 타당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ROC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KSORAS_MINOR의 재범예측력은 AUC 기준 0.887로, 기존 KSORAS의 재범예측력인 0.744보다 대폭 향상되었다. 실제

두 도구의 재범예측 타당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한 결과 신규 개발 도구의 재범예측력은 기존의 그것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chi2(1)=15.19, p=0.001).

<그림 1> KSORAS-MINOR와 KSORAS간 재범예측력 비교



2) 성인 대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성인 대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을 위해 KSORAS-MINOR 구성과 같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변수의 조합을 통해 아래와 같은 10문항을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ADULT)로 구성하였다.**** 문항별 분포와 가중치를 재 점검한 결과, 4번(범죄경력), 5번(수용기간)은 문항 구성과 가중치를 재 조정하였고, 기타 문항은 단순한 기존 가중치법을 유지하였다. KSORAS-ADULT의 총점은 최소 3점에서 최대 16점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은 9.0점 표준편차는 2.31점의 분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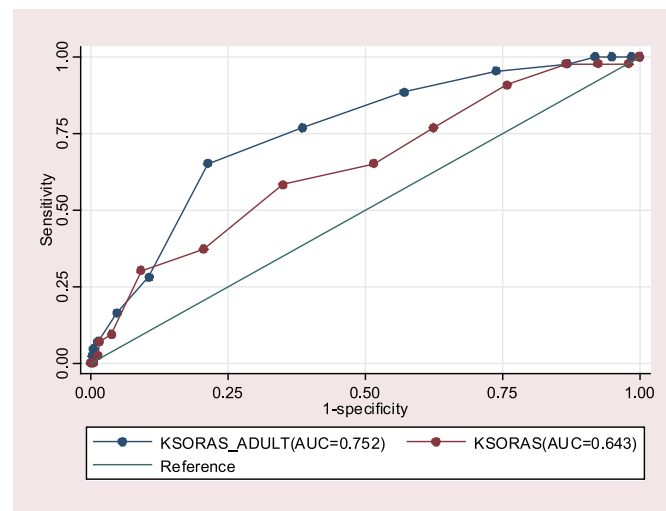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 대상 평가도구 및 성인 대상 평가도구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연구기간이 단기이고, 현재 개발되어 있는 도구와의 예측타당도 비교를 위해 불가피하게 법무부의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의 풀에서 문항이 선별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후속 연구는 각 유형별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는 신규문항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PRAI-R)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분류평가를 위해 개발된 도구로 8가지 요인, 30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복미의 LSI-R을 모델로 개발되었다.
*** 신규추가된 문항은 일차적으로 통계적 우선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신규 추가된 세 가지 문항은 이 외에도 아동 성폭력사범의 특징(8번 대인관계 부적응)과 일반 범법위험요인(9번 반사회적 친구관계, 10번 음주문제)과 연관된 특징을 보이는 문항이다.
**** 신규문항으로는 가족과의 부정적 관계있음(7번, 8번), 음주문제 전력 있음 또는 의심됨(9번), 정신과적 증상전력 또는 의심됨(10번)으로 RNR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상의 재범위험 요인에 포함된 문항을 추가 하였다.

<표 8> KSORAS-ADULT 문항 구성표

문항	위험요인	코딩	채점	비고
1	혼인관계	혼인경험이 없는 혼인경험이 있는	1 0	기존
2	최초 경찰 입건 나이(만)	13세 미만 13세-19세 미만 19세-25세 미만 25세 이상	3 2 1 0	기존
3	이전 성범죄 횟수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0회	5 4 3 2 1 0	기존
4	19세 이후 입건 횟수	3회 이상 2회 1회 0회	3 2 1 0	기존 수정
5	총 시설 수용기간	2년 이상 2년 미만	1 0	기존
6	본 범행 피해자와의 나이차	10세 이상 현저한 차이 그 외 큰 차이 없음	1 0	기존
7	부모와의 관계	원만하지 못함 원만함	1 0	신규
8	다른 가족/친척과의 관계	원만하지 못함 원만함	1 0	신규
9	음주 문제 전력, 의심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1 0	신규
10	정신과적 문제 병력, 의심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1 0	신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성인 상대 성범죄자만을 상대로 하여, KSORAS_ADULT의 재범예측 타당도를 기존 KSORAS의 재범예측 타당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KSORAS_ADULT의 재범예측력은 AUC 기준 0.752로, KSORAS의 예측타당도인 0.643에 비해 대폭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실제 두 도구의 재범예측 타당도를 비교한 결과, 신규 개발 도구의 재범예측력은 기존의 그것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chi^2(1)=6.89, p=0.008$).

<그림 2> KSORAS-ADULT와 KSORAS간 재범예측력 비교



V. 결론

본 연구는 성범죄자 유형론적 관점에서 현행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예측 타당도 분석을 주요 연구문제로 삼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KSORAS는 대체로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중간 정도 이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샘플의 짧은 재범추적 기간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낮은 수치가 아니다. 다만, 본 연구의 관심의 초점인 성범죄자 유형별 재범예측력을 검증하였을 때, KSORAS의 재범예측력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예측력을 보였지만, 성인 상대 성범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범예측력을 보였다. 둘째, KSORAS의 문항별 분석에 있어서도 전체 15개 문항이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및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상이했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함에 있어서는 KSORAS의 많은 문항이 재범을 신뢰롭게 예측했지만,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있어서는 사실상 성범죄 전력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재범을 예측했다. 셋째, 기존 KSORAS 문항을 바탕으로 다른 예비문항들을 포함하여 각각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예측도구를 구성한 결과, 기존의 KSORAS를 두 집단에 각각 적용한 예측타당도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예측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범죄자 유형론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재범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범죄자 유형론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적 결론을 도출했지만, 사실상 성범죄자 유형론을 둘러싼 쟁점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사항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 간의 재범기제가 상이하다는 사실이다. 선행연구들은 아동 상대 성폭력사범의 재범위험요인은 성적 일탈성(sexual criminality)을 중심으로 군집화되고, 성인 상대 성폭력사범의 경우는 일반 범죄성(general criminality)을 중심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주장한다(Doren, 2002; Harris, Mazerolle, & Knight, 2009; Whitaker et al.,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경우 오히려 통상의 일반 범죄성을 상징하는 변수들(예 : 폭력범죄 전력, 감독기간중 문제행동, 수용기간)이 재범위험성을 더 잘 예측하는 반면,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수보다는 성적 일탈성을 상징하는 '성범죄 전력'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다. 물론 이러한 발견사항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라는 단순한 이분형적 분류가 추가 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할 정도로 재범위험성이 상승화된 고위험 성범죄자의 또 다른 특성일 수도 있다. 후속 연구는 이러한 성범죄자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도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 관심사는 아니지만, KSORAS 일부문항에 대한 조정은 KSORAS의 예측타당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술된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9번문항은 단순히 로짓분석 수준에서도 재범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도구들(예 : STATIC-99, MnSOST-R)이 '낮선 피해자'에만 1점에서 3점까지의 점수들을 부과함에 반해, KSORAS는 본 문항에 '낮선 피해자'와 '친족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두 1점을 부과하고 있다. 서구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가족구성원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Rice & Harris, 2002)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문항을 '낮선 피해자'만 측정하는 문항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범예측력은 향상될 것이다. 이 외에도 가해자 연령대의 절단점 조정, 성범죄 전과 횟수 측정방법 세분화, 피해자 나이 문항과 피해자 장애인 여부의 분리, 현저한 폭력 사용의 측정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추가 검토 역시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성범죄자 평가, 치료 및 관리와 관련하여서도 강력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전조사, 청구전조사에는 현행 KSORAS 외에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성인 상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추가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학계에서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 관한 논의도 조금 더 심도 깊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데이터의 제한으로 인한 문제이지만, 재범위험성 평가를 둘러싼 학계의 논의는 피상적이다. 과연 재범위험성은 어느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형기를 종료 한 국민의 자유를 추가 제한하는 보안처분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일까? 개별도구의 예측타당도는 검증되고 있는 것일까?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절단점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는 어떻게 형사사법 실무자들에게 의사소통 되어야 하는가?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가 두 개 이상 병행 사용될 때 불일치된 결과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런 다양한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변이다. 향후 조금 더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해본다.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교도소24시)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 October Vol. 557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일자·장소 9. 2.(금), 안양교도소 / 9. 7.(수), 서울동부구치소 / 9. 13.(화), 서울구치소 / 9. 28.(수) 통영구치소
주요 내용 기관운영 현황 점검, 직원 간담회 등

보안야근자 윤번휴무 준수 특별 지시



목적
보안야근자 윤번휴무 보장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

주요 내용
(교정기관장) 윤번휴무 출근사유 및 출근현황 일일 확인
(지방교정청장) 소속기관 윤번휴무 준수 관리감독 철저
※ 「보안야근자 윤번휴무 준수 특별 지시」
(교정본부 보안과 업무연락, 2022. 9. 5.)

통영구치소 교정위원 간담회



일자·장소 9. 28.(수), 통영시
참석자 교정본부장, 교정위원 등
주요 내용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및 교정본부장 격려 말씀 등

2022년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 개최



기간·주최
9. 19.(월)~9. 23.(금), 싱가포르 교정본부

회의 방법
비대면 화상회의(Zoom 시스템)
※ 각 회원국에서 제출한 회의 의제 발표 방안 및 자유토론 등

세부 일정

일자	주요 내용
9. 19.(월)	오프닝 스피치 상영(교정본부장)
9. 20.(화)	의제 1 발표 상영(교정본부장) 및 회의
9. 21.(수)	의제 2 발표 상영(교정관 문준영) 및 회의
9. 23.(금)	자유토론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이동규

제35대 서울지방교정청장 취임식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9월 26일 제35대 서울지방교정청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정병현 청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교정행정을 통해 수용 질서가 확립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구치소 / 교위 김승일

직장 안보 교육 실시

서울구치소는 9월 16일 진천구 통일TV 대표를 외부강사로 초빙해 현재 북한의 실상 및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등 국제정세에 발맞춘 공직 자세와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직장 안보 교육을 실시했다.



안양교도소 / 교도 이승연

제58대 안양교도소장 취임식 개최

안양교도소는 9월 26일 제58대 안양교도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오광운 소장은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 질서와 인권이 조화로운 수용 관리,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힌 후 소내 초도순시를 실시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직원 탈의실 리모델링 완료

수원구치소는 9월 20일 직원 탈의실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노후화된 직원 탈의실 내부 시설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서호영 소장은 “이번 직원 탈의실 환경 개

선 공사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과 근무 의욕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사)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9월 27일 (사)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실시했다. 또한 나라꽃 무궁화 심기 행사를 진행해 무궁화 묘목 50주를 청사 앞 국기 게양대 울타리 및 민원실 주변 화단에 심었다. 더불어 업무협약을 통해 식재한 수목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무궁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종국

수용자 물품 기증

인천구치소는 9월 8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추석을 맞아 수용자에게 제공될 떡 2,000명분, 사과 2,100개, 빵 2,500개를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품은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돼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에게 명절의 풍성함과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추석에 지급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조도현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이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하영훈 소장은 “추석을 맞아 직원들이 주변 이웃과 나눔을 통해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공명환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

까지 경상남도에서 개최한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수용자는 조적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지난 5개월간 일과 종료 후 특별강화 훈련을 실시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도교사 및 전 직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채병준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9월 14일 직원들을 위해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스트레스 진단 및 상담부스를 운영했으며, 직원들이 피지컬 케어 및 마음 힐링 부스를 방문하는 등 프로그램에 참여해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시간이 됐다.

여주교도소 / 교사 홍재성

제57대 여주교도소장 취임식 개최

여주교도소는 9월 26일 제57대 여주교도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류동수 소장은 “직원 화합과 소통을 강화해 열린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로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의 뜻을 담아 취임 인사를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이동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9월 14일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참관인들은 인쇄, 한식조리 등의 직업훈련 과정과 심리치료센터를 둘러보며 교정현장 확인 및 교정행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춘천교도소는 9월 19일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혈액원에서 춘천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으로 진행하는 헌혈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고귀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원주교도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전 직원의 모금으로 마련한 위문금을 원주시 가톨릭 사회복지회 소속인 안나의 집에 전달했다. 또한 원주교도소 사랑나눔 봉사회에서는 최양업토마스의집과 원주복지원에 컵라면, 화장지 등 위문품을 후원하며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강릉교도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강릉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4곳을 방문하는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김준일

모범 직원 표창식 개최

영월교도소는 9월 2일 모범 직원 표창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범 직원 표창은 소장실에서 실시됐으며, 교감 김주영 등 5명이 표창을 받았다. 송용대 소장은 표창 시상 후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도 성명제

수용자 물품 기증

강원북부교도소는 9월 8일 추석을 맞이해 속초시 기독교연합회로부터 송편 500팩을 기증받았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 강석훈 목사는 “이번 추석 송편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수용자 물품 기증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9월 5일 평택·안중교정협의회 정재선 교정위원으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생수 2,000병을 기증받았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수용자 교육교화사회 복귀 지원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는 9월 21일과 22일 (사)국제미용문화교류협회 및 ㈜밀리언드림즈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국제미용문화교류협회는 토털 뷰티 교육을, ㈜밀리언드림즈는 코딩 교육을 진행한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호찬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은 추석을 맞아 9월 6일 청사 청소원에 대한 격려금 전달을 시작으로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위문금을 대구지방보훈청에 위탁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방지영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대구교도소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경상남도에서 개최한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수용자는 미장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금상을 수상한 수용자는 2019년 미장 직업훈련생으로 처음 선정돼 대구교도소 직업훈련 교사로부터 미장 부문에 대한 노하우 및 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았다.

부산구치소 / 교사 김치호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부산구치소는 9월 5일 추석을 맞이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소화영아재활원, 에바다 드림·리더홈,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 3곳을 비롯해 부산구치소가 위치한 주례3동의 소외된 이웃 등에게 전달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강중구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9월 6일 교정위원회로부터 추석을 맞이해 떡 1,200개를 기증받았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회는 평소에도 많은 기증을 해왔으며, 특히, 명절마다 수용자들을 위해 끊임 없이 기증하고 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이해충돌방지법 도전 골든벨 진행

창원교도소는 9월 6일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목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도전 골든벨’을 진행했다. 참가한 직원들은 “퀴즈를 풀면서 ‘이

해충돌방지법'을 재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산교도소 / 교사 이재운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부산교도소는 추석을 맞이해 9월 1일부터 7일 까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 행사를 가졌다. 부산교도소 직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몸 어르신 가정처럼 소외된 지역사회의 이웃을 살피는 등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포항교도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이해 흥해읍 학천2리 마을회관과 지역 내 복지시설인 사랑의 동산, 흥해읍 사무소 추천 소외된 이웃 5명 등을 방문하고 총 41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진주교도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 진주시 대곡면사무소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받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10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위문금 100만 원을 대곡면사무소에 전달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수용자 물품 기증

대구구치소는 9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추석을 맞이해 송편 1,200세트를 기증받았다. 김시승 교

정협의회장은 "추석을 맞아 수용자들이 그리운 가족을 생각하며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송편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윤시현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 까지 경상남도에서 개최한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수용자가 미장과 타일 2개 부문에 1명씩 참가했으며, 각각 동상과 장려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동교도소 / 교도 신동관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안동교도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이해 기관 소재지인 풍산읍 상리3리 마을회관과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는 등 위문활동을 실시하고 100만 원 상당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안동교도소는 풍산초등학교 재학생 3명에게 매달 3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청렴 및 부정청탁 금지 서약서 작성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9월 2일 청렴서약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작성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서약서를 작성하며, 국민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청렴한 교도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진용혁

직원 상황대기실 리모델링 개관식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9월 1일 직원 복지 증진과 행

복한 직장 만들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직원 상황대기실 리모델링 개관식을 개최했다. 허덕환 소장은 "상황대기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으로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근무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윤정수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9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추석을 맞이해 송편 및 주스 750개를 기증받았다. 기증품은 추석 기간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수용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울산구치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이해 지역사회 내 이웃 주민에게 사랑 나눔 성금을 전달했다. 김영광 소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 돕기를 실시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행복과 희망을 주는 믿음의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이상길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경주교도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이해 소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거노인과 노인회관 및 평소 후원하고 있는 5가정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후원금과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수용자 물품 기증

통영구치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이해 교정협의회 불교분과로부터 송편 450인분을 기증받았다.

김진아 소장은 "수용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빈틈없는 수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밀양구치소 미르피아 보라미봉사단은 9월 7일 추석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매월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적립된 기금으로 관내 3개 마을회관과 지역주민 4가정을 방문해 18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아동위탁보호시설 신망원과 사회복지시설 소망원에 각 5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상주교도소는 9월 6일 추석을 맞아 지역 복지시설, 노인회관, 소외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홍순철 소장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이경민

제32대 대전지방교정청장 취임식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9월 26일 제32대 대전지방교정청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한 유태오 청장은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조화를 이루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와도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해 선진 교정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수용자 독서 및 독후감 경진대회 심사

대전교도소는 9월 6일 수용자 독서 및 독후감 경진대회에 대한 출품작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는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교정위원 11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출품된 72편의 독후감을 심사하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가작 6명을 선정해 푸짐한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보라미준비교실 실시

청주교도소는 9월 5일 서원구 소재의 산남중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보라미준비교실'을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교도관과 교정시설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으며,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천안교도소 / 교도 광태업

재난안전 대비 자체 소방훈련 실시

천안교도소는 9월 8일 재난안전 대비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수용동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수용자 대피 및 진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실제 상황을 가정해 훈련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제 화재 발생에 대비하는 훈련이 됐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조은희

청렴 실천 및 갑질 근절 공모전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9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및 갑질 근절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반부패 청렴 활동을 장려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 및 갑질 예방 의식 제고에 기여했다.



공주교도소 / 교위 김성준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공주교도소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추석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인 '누리재활원' 및 사랑의 손잡기 결연 가정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성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충주구치소는 9월 8일 추석을 맞이해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했다. 주기남 소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찾아 먼저 살피고 돌보는 사랑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교도소 / 교도 김희빈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홍성교도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이해 지역 아동양육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2곳과 결연 가정 5곳에 온누리상품권을 등기로 전달했다. 대면으로 이뤄지던 위문활동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대체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이해 지역 소재 공동생활가정 3곳을 방문했다. 직원들은 공동생활가정에 정성껏 마련한 성금을 전달했으며, 이번 위문활동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아동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천안개방교도소는 매년 명절과 연말 연시에 꾸준히 위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정기관 NEWS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아 지역 내 홀로 외로운 명절을 보내거나 계속되는 지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방문해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김현수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활동은 따뜻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인균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9월 10일 추석을 맞이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밀알의 집'과 아동보육원 '애육원'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광주교도소 / 교사 전은주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광주교도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이해 사회의 온정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활동은 무연고 수용자를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 2곳과 불우 청소년 6명에게 총 38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광주교도소는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복지 실천에 앞장설 것이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반부패·청렴 캠페인 활동 실시

전주교도소는 9월 6일 교정공무원의 청렴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성에 앞장서고자 청렴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전주교도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순천교도소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경상남도에서 개최한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수용자가 실내장식과 미장 2개 부문에 1명씩 참가했으며, 각각 은상과 동상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목포교도소는 9월 7일 추석을 앞두고 무안군 일로읍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소전원'에 방문해 추석맞이 사랑 나눔 기부금을 전달했다. 최국진 소장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조금이나마 우리 직원들의 온정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교도소 / 교위 우영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군산교도소는 9월 15일 이남구 소장 및 각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남구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 직원들이 술선수범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식을 확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제주교도소 / 교사 고동성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제주교도소는 9월 6일 추석을 맞이해 제주시 희망원, 제광원, 무지개마을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을 찾아 장애인과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활동은 제주교도소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결성한 한라교정봉사회에서 성금 150만 원 상당을 모금해 각 시설에 쌀(20kg) 12포대씩을 전달했다.

장흥교도소 / 교도 김민석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장흥교도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이해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장흥종합사회복지관과 장흥군 가족센터, 탐진그룹홈을 차례로 방문했다. 총 15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호민

직원 건강관리 클리닉 실시

해남교도소는 9월 7일 직원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해남군 보건소의 업무 협조를 받아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는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 알기' 클리닉을 실시했다.

정읍교도소 / 교사 박승현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정읍교도소는 9월 7일 추석을 맞이해 '정읍애육원', 고창 '아모스요양원' 등 아동양육시설 2곳과 지역 소외계층 3명에게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활동은 지역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했다.

Re:mind

모범 공무원



서울구치소 교위 인철호

인철호 교위는 1995년 임용 후 약 26년 동안 재직하면서 성실한 자세와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과 기독교 종교행사 담당자로 올해 기독교 종교 집회를 28회, 55건 이상의 개인 종교 상담을 진행하는 등 올바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천소년교도소 교위 김혜영

김혜영 교위는 보안과 근무자로 지난 8월 20일, 신입 격리 거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텔레비전 전기 공급선을 목에 감고 자살시도하는 것을 발견해 즉시 TRS로 상황 전파 후 제지했다. 몇 시간 후 수용자가 또다시 수건으로 목을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해 TRS로 상황을 전파하고 함께 출동한 근무자들과 제지하는 등 수용자 자살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청주교도소 교사 김원섭

김원섭 교사는 기동순찰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수용동 및 작업장 순찰, 엄중관리 대상자 동정 파악, 기초질서 규율 단속 등 수용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신입 수용자의 규율, 징벌, 복직 처우 등 수용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구금으로 인한 수용자의 긴장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단시간 내 수용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교도소 교감 최인준

최인준 교감은 1987년 임용 후 약 35년 동안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보안 2부 야근 재물관 담당자로 책임감 있는 수용 관리와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원칙적 근무를 통해 수용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수용자들의 의료 처우 및 출소 후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수용자 개별 처우에 이바지하고 있다.



독자 퀴즈

숨은 그림 찾기

아래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숨은 그림 10개를 찾아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다람쥐
-  종이배
-  고슴도치
-  부엉이
-  여우
-  비구름
-  달팽이
-  우산
-  물뿌리개
-  커피잔



나이가 여러 개라 너무너무 헛갈려요!

#세는나이 #연나이 #만나이
이제 만나리로 통일합니다

29살
만 나이



31살
세는 나이



자세히 보기

30살
연 나이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나리로 헛갈렸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되면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해소됩니다!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QR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간 <교정> 논문 모집

월간 <교정>에 게재할 교정 관련 논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논문 투고 방법

- 논문 주제**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가능
- 논문 종류** 학위 논문(석사, 박사), 학회 논문, 학술지 논문
- 제출 방법**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로 논문 원고 송부
(correct2015@naver.com)

※ 제출 시 이메일에 성명,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월간 <교정>에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모바일 상품권)를
드립니다.